

## 八 反 歌

幼兒或詈我 我心 覺懽喜 父母 嗔怒我 我心 反不甘。一懽喜一不甘 待兒待父心何懸。勸君今日逢親怒 也應將親作兒着。

⇒어린아이가 혹시 나를 꾸짖으면 내 마음은 기쁨을 느끼고, 부모가 나에게 화를 내면 나의 마음은 오히려 언짢아진다. 한쪽은 기쁘고 한쪽은 언짢으니 아이를 대하는 것과 어른을 대하는 것이 어찌 이리 다를 수 있는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오늘 부모의 노여움을 만나거든 그것을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라.

⇒子供がもし私を叱れば私の心は喜びを感じて、親が私に怒れば私の心はむしろよくない。一方は嬉しくて一方はよくないから子供を接することと大人を接するのがどうしてこんなに違うことができるか? 君に進めるのに今日、親の怒りに会ったらそれをまるで子供を接することと同じ心と思いなさい。

兒曹 出千言 君聽常不厭 父母 一開口 便道多閑管。非閑觀親掛牽。皓首白頭 多諳諫。勸君敬奉老人言 莫教乳口爭長短。

⇒어린 자식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그대는 언제든지 듣기를 싫어하지 않고, 부모님은 입을 한번만 벌려도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남의 일에 간섭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 부모는 흰머리가 되도록 오랜 인생을 살았으므로 도움이 되는 일이 많다. 노인의 말을 공경하여 받들고 그 가르침을 젖내 나는(어린) 입으로 옮겨주니 그르거나 따지지 않도록 그대에게 권한다.

⇒幼い子たちは言葉をたくさんするが君はいつでも聞きたがらないで、ご両親は口を一度だけ開けても無駄なものを言って他人の事に干渉すると思う。しかしこれは無駄ではなくて心配になってそうだ。親は霜になるように長年の人生を暮らしたので役に立つ事が多い。年寄りの言葉を敬って奉じてその教えを乳のにおいする(幼い) 口で正しいとか正しくないとかしないように君に勧める。

幼兒尿糞穢 君心 無厭忌 老親涕唾零 反有憎嫌意。六尺軀來何處。父精母血成汝體。勸君敬待老來人。壯時爲爾筋骨敵。

⇒어린 자식의 소대변 같은 더러운 것은 그대 마음에 싫어하지도 꺼려하지도 않으면서, 늙으신 부모님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는 것은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는구나. 그대의 여섯 자 몸뚱이는 어디에서 왔는가? 아버지 정기와 어머니의 피가 그대의 몸을 만들었도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 가는 사람을 공경하고 대접하라. 그들은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하여 힘줄과 뼈가 닳도록 고생하셨노라.

⇒幼い子の小大便みたいな汚いことは君の心で嫌やがるのも憚らないのに、老けたご両親の涙と唾が落ちることは返って憎んで嫌やがる。君の六字体はどこから来たのか? お父さん精気とお母さんの血が君の身を作ったのだ。君に薦めるのに老ける人を敬ってもてなさない。彼らは若かった時、君のために筋と骨が擦れるように苦労している。

看君晨入市 買餅又買饅 少聞供父母 多說供兒曹。親未啖兒先飽 子心 不比親心好。勸君多出買餅錢 供養白頭光陰少。

⇒ 그대가 새벽에 시장에 가서 밀가루떡과 흰떡을 산다는 말은 듣지만 그것들을 부모에게 드린다는 말은 별로 듣지 못하였고 주로 자식에게 준다는 말은 많이 들었다. 부모는 아직 씹지도 않았는데 자식은 벌써 배가 부르니 자식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비교할 수가 없다. 떡 살 돈을 많이 내어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를 잘 받들어 봉양할 것을 그대에게 권한다.

⇒君が夜明けに市場へ行って小麦粉の餅と白餅を買うという話は聞くがそれらを親に上げるという言葉はあまり聞いたことがなかったし、主に子に与えるという話はたくさん聞いた。親はまた嚙んでもないのに子はもうお腹が一杯だから子の心は子を愛する親の心に比べることができない。餅を買うお金をたくさん出して生きている日があまり残ってない親をよく奉じて奉養することを君に勧める。

市間賣藥肆 惟郁巴兒丸 未有壯親者 何故兩般看。兒亦病親亦病 醫兒不比醫親症。割股 還是親的肉 勸君亟保雙親命。

⇒시중의 약장수 가게에는 오직 어린아이 살찌는 약은 있어도 부모를 건강하게 하는 약은 없으니 왜 이 두 가지를 차이를 두고 보는가? 어린아이도 부모도 역시 병들었는데 아이의 병을 고치는 것과 부모의 병을 고치는 것을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다리를 베어도 그것은 역시 부모의 살이니 서둘러서 부모의 목숨을 극진히 보살피기를 그대에게 권한다.

⇒市中の薬売り店にはただ子供を太らせる薬はあっても親を元気にさせる薬はないからどうしてこの二つを差を時間をかけて見るか? 子供も親もやっぱり病んだが子供の病気を直すことと親の病気を直すことをどうして敢えて比べることができるか? 足を斬ってもそれはやっぱり親の肉だから急いで親の命を手厚く面倒を見るのを君に勧める。

富貴 養親易 親常有未安 貧賤 養兒難 兒不受饑寒。一條心兩條路 爲兒終不如爲父。勸君養親 如養兒 凡事 莫推家不富。

⇒부귀할 땐 부모를 봉양하기 쉽지만 부모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빈천한 땐 아이를 기르기가 어렵지만 아이는 굶주리고 춥지는 않다. 마음은 한 가지이지만 아이를 위하는 길과 부모를 위하는 길, 즉 두 가지 길에서 아이를 위함은 부모를 위함과 같지 않다. 그러니 부모 모시기를 아이 기르듯이 하고, 모든 것은 집안이 넉넉지 못해서 그렇다고 미루지 말기를 그대에게 권고한다.

⇒富貴の時は親を奉養しやすいが親はいつもすまない心を持っている。貧賤も時は子供を育てにくいが子供は飢えて寒くはない。心は一つだが子供のための道と親のための道、即ち二つの道で子供の慈しみは親の慈しみのようなではない。だから親を仕えるのを子供育てるようにして、すべてのものは家が余裕なくてもそれを延ばしてはいけないことを君に勧告する。

養親 只有二人 常與兄弟爭 養兒 雖十人 君皆獨自任。兒飽暖親常問 父母饑寒不在心。勸君養親 須竭力。當初衣食 被君侵。

⇒부모를 봉양할 때엔 단 두 분 뿐인데도 언제나 이것을 형제가 다투고, 기를 아이는 열 명이나 되어도 모두 그대 혼자 다 떠맡는다. 아이가 배부르고 따뜻한가는 늘 물어보면서 부모가 굶주리고 춥지 않은가에 대하여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부모를 봉양함에 힘을 다할 것을 그대에게 권하노라. 부모님들은 그대를 기를 때 원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그대에게 다 빼앗겼다.

⇒親を奉養する時にはただお二人様だけなのにいつもこれを兄弟が争って、育てる子供は十名も居ても皆君一人でみんな引き取る。子供が満腹で暖かいのかは常に問って見ながら親が飢えて寒くないのかに対しては関心さえ置かない。親を奉養するに力をつくすことを君に勧める。ご両親たちは君を育てる時は元々彼らが持っていた着るものと食べ物を君にすべて奪われた。

親有十分慈 君不念其恩 兒有一分孝 君就揚其名。待親暗待兒明 誰識高堂養子心。勸君漫信兒曹孝。兒曹親子在君臣。

⇒부모의 사랑은 가득 차 있는데도 그대는 그 은혜를 생각지 않지만 자식이 조금만 효를 해도 그대는 곧 그 이름을 빛내려 한다. 부모 대접은 어둡고 자식 대접은 밝으니 부모가 자식 기르는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부질없이 자식의 효도를 믿지 말기를 그대에게 권하노라.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라면 그대도 곧 부모가 될 터이다.

⇒親の愛はいっぱいなのに君はその恩恵を考えないが子が少しだけ孝えても君はすなわちその名前を輝かそうと思う。親のもてなしは暗くて子のもてなしは明るいから親が子育てる心を誰が分かるか? 余計に子の親孝行を信じないのを君に勧める。子供達が自分の子なら君もすぐ親になるはずだ。